

한국 남자들, 'US여자오픈' 우승 정조준

‘골프 여제’ 박인비(30·KB금융그룹)를 필두로 전인지(24·KB금융그룹), 박성현(25·KEB하나은행)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8 시즌 2번째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 우승 사냥에 나선다.

이달 31일부터 나흘 간 앨라배마주 솔크릭에서 ‘제73회 US여자오픈’이 열린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US여자오픈’은 올 시즌 2번째 열리는 메이저 대회다. 총 상금 500만 달러로, 2018 시즌 LPGA 투어 최대 규모 상금 경기이기도 하다. 대회보다 선수들의 우승 열망은 크다. 특히 최근 대극남자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면서 우승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먼저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인 ‘골프 여제’ 박인비는 지난주 기분 좋은 승전고를 울렸다. 박인비는 지난 20일 펼쳐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접전 끝에 김아림(23·SBI저축은행)을 한 홀 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LPGA 투어에선 이미 통산 19승을 보유한 박인비이지만 국내 투어에선 첫 우승이었다.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통해 박인비는 2008년 3월 KLPGA 입회 이후 19전 20기의 도전 끝에 감격의 국내 무대 첫 우승을 차지하며 큰 숙제 하나를 끝냈다.

이제 박인비의 시선은 ‘US여자오픈’으로 향한다. 박인비는 최근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온 대회 두 개가 바로 ‘US(여자)오픈’, ‘한국여자오픈’이다”며 “퍼트감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는데 이 좋은 감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인지도 우승을 노린다. 전인지는 3년 전인 2015년 ‘US여자오픈’ 우승자다. 최근 대회였던 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에선 준우승을 차지했다. ‘킹스밀 챔피언십’을 앞두고 쇼트 커트 스타일로 바꾸는



▲ ‘US여자오픈’에서 우승을 노리는 박인비, 전인지, 박성현(왼쪽부터)

등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즌 첫 승을 노렸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2016년 9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1위에 오른 뒤 이번 ‘킹스밀 챔피언십’까지 1년 8개월간 우승 없이 준우승만 6차례 기록한 전인지이지만, ‘US여자오픈’을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린 점은 고무적이다.

한 명이 더 있다. 바로 박성현이다. 지난해 LPGA 투어 3관왕의 주인공 박성현은 올 시즌 출전한 7개 대회 중 2개 대회에서 컷 탈락하는 등 초반 부진의 늪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이달 7일 끝난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클래식’에서 시즌 첫 승을 올리며 부진 탈출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특히 박성현은 ‘US여자오픈’의 디펜딩 챔피언이다. 박성현이 지난해 LPGA 투어에 데뷔한 뒤 첫 우승을 한 대회가 바로 ‘US여자오픈’으로, 이번에는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JOY 핸디맨 & 플러밍

물 수요 :
연락주세요.
물 피해 보험 클레임 환영

24 시간 제이킴 714.249.5469
리사킴 213.819.9557

청 한의원
Dr. CK Formula
Pinebrook Acupuncture

난치병, 각종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풍, 파킨슨, 불임증 그외다수

어떠한 힘든 병도 오세요
묻지도 않고 모든 증상 알아맞히는 “불문진맥”
신기할 정도로 빠른 통증을 개선시키는 “청특수침술”
믿기지 않는 특수효과의 “청한약처방”

Coupon \$20 특수침술
714.636.1412
9355 Chapman Ave, #108
Garden Grove, CA 92841

DIFA DIGITAL FASHION ACADEMY 패턴/컴퓨터패턴 전문학원 **디파**

안정된 직장이 없어 불안하십니까? 잠깐의 시간과 적은 투자로 평생이 보장되는 직업이 여기 있습니다

2017년 졸업생 전원취업!!!

경기가 나쁘다고 탓 하지마시고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십시오~

최고의 고소득 기술전문직인 패턴메이커 과정(손패턴+컴패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주말(토요일)반 개설!!

교육내용 손패턴·컴퓨터패턴·Sewing·Grading & Marking

1년 과정반 / 주말반 (토요일) 매월 수시입학 가능 2주무료 적성검사

6월 4일 개강

Joyce Lee | Tel. 714 707 0890
7342 Orangethorpe, Ave.#A210, Buena Park, Ca90621